

시설과 사람들

2022 Vol.87







바다로 가자 큰 바다로 가자
우리 인제 큰 하늘과 넓은 바다를 마음대로 가졌노라
하늘이 바다요 바다가 하늘이라
바다 하늘 모두 다 가졌노라
웁다 그리하여 가슴이 뻥은치야
우리 모두 다 가졌구나 큰 바다로 가졌구나

- 김영랑 '바다로 가자' 중에서

태종대유원지 영도등대

C·O·N·T·E·N·T·S

2022 Vol.87

PART 1

행복을
말하다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특집

- 06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장면의 기록
- 08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기념백서 발간
- 10 시민이 직접 뽑은 공단 창립 30주년을 빛낸 뉴스
- 12 시민이 전하는 축하메시지
- 14 '수기공모전 최우수상' 백세 파티는 광안대교 앞에서

인터뷰

- 16 부산시설공단 공개채용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PART 2

시설을
말하다

시설탐방

- 22 문화예술로 숨쉬는 부산역광장

재난안전

- 24 부산역광장 시민불편 해결 위해 우리가 나선다!

시설탐방

- 26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변신중

기술혁신

- 28 신기술 적용 국가 R&D 사업에 박차를 가하다



PART 3

기쁨을
말하다

현장속 인물

- 30 중앙공원관리소장 찾아 '감사패 전달'

현장속으로 01

- 32 다문화가족 향수정원 조성

현장속으로 02

- 34 부산시민공원에 느티나무동산 조성

현장속으로 03

- 36 부산어린이대공원 옛 금연동산, '키우미숲'으로 탈바꿈





발행처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174)
기획·편집 소통홍보팀 051.860.7923
홈페이지 www.bisco.or.kr
디자인 문화락 1600.1602

PART 4

당신과 함께

특집기사

38 비스코 핸드볼 선수단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1박2일

시민참여

40 시민참여플랫폼 대학생홍보단 '영비스코' 12기

현장실습

42 영락공원 장례지도사 현장실습 교육

캠페인

44 생탁과 함께 6대 공원 유원지 '친환경 캠페인'



PART 5

For You

공단 사람들

46 부산시설공단 한혈왕 4층사

우수성과

48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회사생활 이모저모

50 부산시설공단 한마음 불링대회

Culture & Life

54 '흑토끼'의 해를 맞아 띠별 운세를 점쳐보자

이벤트

56 '2030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응원톡 이벤트



PART 6

뉴스 더하기

비스코톡톡

58 카카오톡 챗봇 '부비'가 궁금해

공단 소식

60 비스코 뉴스

공단 소식

62 사진으로 보는 공단소식

SNS

66 공단블로그 '공단 캐릭터 꼬미와 꾸미'로 더욱 친근하게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장면의 기록

시민 행복 한길을 위해 30년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부산시민들을 위한 등불이 되어
부산시민이 다시 태어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걸어 나가겠습니다.

30th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기념백서 발간



시민의 일상과 늘 함께해 온 공단의 30년 발자취 담아 '시민과 함께한 30년 부산의 미래를 연다' 펴내

부산시설공단이 지나온 30년 역사를 담은 기념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총 260페이지로 구성된 기념백서 '시민과 함께한 30년 부산의 미래를 연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시민의 일상과 늘 함께해온 공단의 30년 발자취를 담아냈다.

백서는 제1부 '30년의 동행, 아름다운 결실', 제2부 '30년의 땀방울, 100년의 숲을 가꾸다', 부록인 제3부 '뜨거웠던 여정의 발자취와 자료로 보는 부산시설공단' 등 총 3개 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는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으로 첫발을 내딛은 이래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부산시설공단'으로 사명이 바뀌어가며, 현재까지 이어온 공단의 주요 이슈들이 시대별로 담겼다.

제2부는 현 경영진과 30년 영광의 주역인 주요 전임 이사장 인터뷰, 공단 선배들 인터뷰, 공단 전 부서 소개를 비롯해 창립 30주년 기념 수기공모전 수상작과 부산시민이 뽑은 공단 창립 30주년을 빛낸 뉴스, 부산시민이 전하는 축하메시지를 담았다.

부록인 제3부에는 지난 30년 공단의 주요 사진과와 현황 자료를 기술했다.

공단 경영진은 "어느덧 서른살 청년으로 성장한 우리 공단이 일기장을 30년 만에 처음 썼다. 앞으로 일기는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미래 부산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알차게 채워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단이 이번에 발간한 30주년 기념백서는 공단 누리집(www.bisco.or.kr)에서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날 수 있다.

bisco
1992-2022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직접 우리 공단을 빛낸 30대 뉴스를 선정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 온 여정 속에서 부산시민들과 함께한 공단의 30년을 돌아보자.

- 1**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 위탁 관리운영 시작 (2003)


2029명
- 2**

외환위기 속 배를 끄는 노력과 고등분담, 5년 연속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1998)

1500명
- 3**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으로 첫걸음을 내딛다 (1992)

1288명
- 4**

터널 청소와 공원 업무를 인수,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도약 (1998)

1223명
- 5**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개장 (2014)

1220명





6	부산의 대표적인 명물 자갈치 시장의 인수와 활성화 노력(2006)	1166
7	영락공원 인수를 통한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1999)	1088
8	국제지하도상가 인수를 기점으로 남포·부산역·서면지하도상가 등 위탁 관리운영 시작(2001)	1086
9	아테네올림픽의 감동을 부산으로, 여자 핸드볼팀 창단(2004)	1055
10	부산대역 남측주차장에 전국 최초 카드 전용 주차장 시범 설치(2003)	853
11	부산의 역사가 담긴 중앙공원(옛 대청·대신공원) 위탁 관리운영 시작(2004)	818
12	부산의 대표 관문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사업 인수(2021)	717
13	공단 정예인력으로 구성된 전문안전관리시스템 '안전드림닥터' 출범(2005)	700
14	지방공기업 최초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으로 업무를 혁신하다(2005)	676
15	상호 신뢰하는 노사관계를 통해 지방공단 최초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2005)	669
16	부산시설공단으로 사명을 개정,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2010)	626
17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제1회 대한민국 ESG경영대상 특별상 수상(2021)	621
18	전국 공공기관 최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부산지역 노인 취업난 해소 첫걸음(2008)	606
19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통한 고객 감동 실천, 5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 수상(2005)	595
20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향한 두리발 사업 인수와 운영 개선(2019)	574
21	채용 전 과정을 채용대행사에 위탁하는 혁신적 공개 채용 도입(2006)	550
22	고용불안 없는 행복한 직장,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2020)	535
23	코로나 여파 속 수해 복구 지원, 연탄 나눔, 기술봉사 등 사회공헌 전개(2020)	508
24	공단 전사적 사회공헌활동의 모태, 사랑나눔 봉사회 운영(2005)	503
25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투명경영구현을 위해 지속가능경영을 선언하다(2009)	462
26	부산 공기업 최초 교량·터널·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2019)	398
27	공단 전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구축 완료(2013)	395
28	세계 시민 누구나 함께 어울리는 열린 광장, 부산유라시아플랫폼 관리 인수(2019)	355
29	한마음스포츠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 프리) 인증 획득(2013)	341
30	해외입국자 비상수송지원단 운영,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맞서다(2020)	315

(단위: 명)



시민이 전하는 축하메시지

• 총 시민 4,280명 참여 •

30주년 축하해요, 30년 동안 부산을 위한 사업 진행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 10년 더 부산 시민을 위한 사업 진행 부탁드립니다. 40주년 축하 때도 좋은 소식으로 만나요^^ 창립 30주년 축하드려요. 부산시설공단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오래오래 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창립 30주년 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세월 부산시민과 부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힘써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부산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있어서 넘 다행입니다~~~축하드려요^^ 부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산시설공단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산에 랜드마크 시설을 잘 관리하고 홍보하는 데 앞장서는 부산시설공단의 창립 30주년 축하합니다. 시민공원에 더 다양한 품종의 식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산 시설공단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40년50년60년 시설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욱더 부산의 편의를 위해 힘써주세요. 부산시설공단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길 바랍니다. 영원히 부산시민과 함께해용. 늘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시설공단창립30주년을 축하합니다 시민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시설공단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 30주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300년 가는 건실한 공공기업이 되어주세요!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립 30주년 빛날 뉴스를 체크하다 보니 부산시설공단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최초로 도입, 사회봉사하는 공공기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 좋은 일에 힘써 주세요. 파이팅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축하드립니다. 부산이 이곳저곳을 다들고 가꾸어 빛이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빛날 부산이 기대됩니다! ♡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편리한 도시, 행복하고 윤택한 시민생활을 위해 선도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산시설공단이 되어 주십시오.나의 인생과 함께 커가는 부산시설공단! 우리 같이 살아가는 내내 좋은 기억만 가득할 수 있도록 더욱 멋진 활동들을 기대합니다! 30주년 너무 축하해요! 저와 같은 시기를 보내온 부산시설공단의 생일이라니 감회가 새롭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시설로 부산시민들에게 인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모든 일상속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부산시설공단이 벌써 30년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부산시민들을 위해 남들 쉬는 휴일에 나와서 근무 하시고, 시설을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발전시키는 모습 너무 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더욱더 살기 좋은 부산이 되는 거 같아요~~ 창립 30주년 축하 드리고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부산시설공단 화이팅 입니다. 여러가지 뉴스를 한꺼번에 보다보니 부산시민으로서 참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잘부탁드립니다! 부산은 시설공단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창립 30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힘내주세요:) 축하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립 30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듯 행복하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 힘써주세요~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행복하고 윤택한 시민생활을 위해 힘써주셔서 부산시설공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신뢰받고 믿음을주는 부산시설공단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계속 부산을 대표하여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단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부산의 시설을 안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곳까지 관리해주는 공단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부산시설공단의 노고를 잘 알고 있기에 지난 30년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한 기술과 친환경 녹색 중심의 안전한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을 위해 앞장서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사랑합니다. 부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산시설공단 직원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대 앞으로도 부산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믿음가는 사업 추진으로 더 신뢰받고 31주년, 32주년 쪽~ 오래도록 많은 사랑받길 바라며 응원해요^^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큰 사랑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30주년 축하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살기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기분 좋은 소식과 다양한 정책들로 함께해 주시는 멋진 모습과 눈부신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30년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부산시설공단의 창립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협력공인 관리와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심에 금정구민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부탁드립니다. 부산시설공단 30주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 부산시민을 위한 최고에 시설공단이 되길 바라구 응원할게요. 파이팅~~!! 30년 후 회갑잔원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 화이팅!!! 부산시설공단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40년 50년 쪽 이어나가는 부산시설공단이 되기를 바랍니다.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부산시설공단이 되길 응원치를 기대합니다.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30주년 창립 기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짹짹 부산시설공단의 지나온 30년 발자취를 살펴봤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가올 새로운 30년은 더욱 풍성하게 발전하는 기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시설공단이 30년간 발전해올 수 있던건 부산시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큰 발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과 소통하는 부산시설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분들에게 사랑받길 바라며 항상 응원할게요~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 좋은소식들이 많이 생기길 부산 시민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사업과 훌륭한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30년간 부산을 위해 고생많으셨습니다! 안좋은 일도 좋은 일도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늘 좋은 수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부산을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같이 가요 ㅎㅎ와 3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부산시설공단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행복하고 윤택한 시민생활을 위해 힘써온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축하합니다~! 40주년 50주년 쪽쪽 함께해요

^^30주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되길 바라요. 항상 응원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의 30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을 위해 애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직원 여러분의 앞날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부산시설공단 파이팅~!! 30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30주년 축하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뉴스를 선택하려고 내려보다 보니 기억도 새록새록 하네요. 앞으로도 안전하고 튼튼하게 운영해주시면 좋겠고 정기적으로 감사도 부탁드립니다. 30년 동안 부산의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부산시설공단 30주년 축하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30년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축하해요 30주년 축하드려요!! 짹짹 응원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받길 바라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열일하셔서 부산시민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하고, 부산시설공단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100주년을 향해서 파이팅~ 부산시설공단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고 윤택한 시민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부산시설공단의 발전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쪽쪽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민들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부산시설공단의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민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축하드립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시민들을 위해 애써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등 여러 시설을 열심히 관리해주셔서 시민들의 편안함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부산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부산시설공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힘써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창립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오래오래 사랑받는 부산시설공단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창립30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정보와 운 영부탁드리며 소등 많이해주세요! 벌써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다니 정말 축하합니다. 그동안 부산시설공단에서 실행한 일들이 대단한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번창하고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세요~!! 부산시설공단 창립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잘하는 부산시설공단 파이팅!! 일반 시민이겐 생소할수 있는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기대할게요! 부산시설공단 더 강하고 청렴한 메시지를 주시고, 다시 한 번 30주년 축하드립니다. 부산시설공단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기억남는 부산이 되도록 항상 힘써주는 여러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부산시민으로서 알게모르게 주변이 정돈되고, 삶이 편리하게발전하는 모습이 늘 놀랍고, 부산시설공단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부산의 산, 바다 그리고 시민의 삶이 어우러져 더욱 빛나게아름다운 국제도시로서 생동감 있게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의 창립30주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곁에 있는 느낌의 가득한 부산시설공단!! 3년도 10년도 아닌 무려 30 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부산시설공단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있어 부산이 현재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부산을 위해 힘써주세요! 부산시설공단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곳곳이 지켜주는 나무같은 공기업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부산시가 젊은층을 잡기 위해 쇼핑몰이나 주차장 카드결제 이런 것 노력하는 행동 보기 좋습니다. 시설공단이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더 발전하는 부산 만드려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것 보기 좋습니다. 창립30주년 축하드리고 더 좋은 활동 해주세요 창립 30주년 축하드립니다. 부산시민과 친숙한 부산시설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시민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산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부산시설공단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산 여행 갔었을 때 기억이 떠오르네요. 랜드마크 관광지임에도 시설 외부 내부 너무 깨끗하고 좋았는데 부산시설공단에서 좋은 사업들이 많아 그 노력이 큰 것 같아요 30주년 축하합니다♡더 좋은 세상을 위해 힘내주세요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부산으로 발전하는 데 앞장서서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도시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응원해요.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축하드려요~!!o^o/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번창하시고 많은 사랑 받으시기를 기원하고 응원드려요:) 부산시설공단 창립30주년을 축하합니다. 깨끗하고 정비된 부산시설 등을 통해 더 편리하고 발전된 지역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부산 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각 지자체 계산 모든 분들 수고하 많았습니다♡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30년이란 세월 속에 저 또한 같이 달려왔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달려갑시다...부산시설공단 파이팅... 부산에서 태어나 39년째 살고 있는데 부산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더 살기 좋은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설공단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공원, 교통, 상가, 장사, 체육, 문화 등 여러가지 시설을 관리해준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30년에 개최될 부산세계박람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더 편하고 안전한 부산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응원합니다.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부산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있어서 지금의 부산시가 있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부산시설관리공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기관의 설립목적에 걸맞는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부산을 위한 부산에 의한 부산시가 되어 주세요.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30년을 넘었 이 달려오면서 쌓인 다양한 업적들을 꼭 훑어보면서 부산시설공단의 노고를 다시 한 번 되짚 수 있었습니다.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시설공단
창립 30주년
수기 공모전



올해 우리 공단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단과 함께 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작품을 만나보자.

백세 파티는 광안대교 앞에서

조유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라색 꽃잎이 피는 것 같아.’ 내가 예닐곱 살이었을 무렵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처음 봤던 광안대교의 기억은 마치 신기루처럼 바다 위를 몽환적으로 부유했다. 어느덧 이십 대 후반이 된 지금도 오묘한 보랏빛 빛깔이 점멸하는 광안대교의 경관은 한결같이 아름다웠다. 오로라를 담은 다이아몬드 브리지의 빛이 어두운 밤을 밝힐 때면 내 마음에도 전등이 켜지는 것만 같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광안대교와 달리 내 인생은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었다.

부모님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자 가족들 사이를 비집은 미움이 몸집을 부풀렸다. 관계가 데면 데면해진 부모님 대신 친구들이 위태로웠던 내 곁을 지켜주었다. 라쿤과 물개 그리고 나. 우리 삼총사는 묘한 관계성으로 우정을 이어왔다.

라쿤은 내 고교 시절 친구였고 물개는 라쿤의 대학 친구였다. ‘혹시 물개?’ 물개와 나는 서로 라쿤을 통해 이름이랑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연히 물개와 마주쳐서 아는 척을 한 것이 물개와 첫 만남이었다. 우리는 엄청난 친화력을 발휘해 초면에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물개와 나는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다. 그렇게 물개와 나, 라쿤, 우리 삼총사가 항상 뭉쳐 다니기 시작했다.

내 삶을 뒤흔든 병

오랜만에 실컷 꾸미고 친구들과 광안리 나들이를 나왔다. 날이 저물고 저녁노을이 하늘을 수놓자 양 옆에 선 친구들의 손을 맞잡고 살짝 핑크빛이 도는 라일락 빛깔이 만개한 광안대교를 관람했다. 친구들과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아름다운 야경을 눈에 담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그날은 내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날이었다. 나는 옛날부터 몸이 약했다. 21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후 6년을 암 투병으로 보냈다. 나를 뒤흔친 백혈병은 가족했고 또 괴로웠다. 투병 중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맨몸으로 지옥 불 위를 걷는 통증과 우울감에 침식되었다. SNS로 다른 친구들의 청춘을 훑쳐볼 때면 억울함과 원망으로 내 안의 진흙 웅덩이가 질퍽거렸다. 질투, 시기, 부러움, 슬픔 부정적인 감정이 한데 모여 어그러졌다. 햇볕조차 들지 않는 4평 남짓한 좁은 병실 안에서 고통으로 얼룩진 나날을 필사적으로 버텼다. 매일 새벽, 몇 번이고 몸을 쉬시는 혈액검사, 뼈를 뚫는 골수검사, 새우처럼 웅크리면 벌어진 뼈 사이 연골을 뚫어 뇌 척수액을 받는 검사, 경한 폐소공포증이 있는 나에게는 고역인 MRI, CT 검사. 하루에 몇 차례고 검사실을 순회할 때면 휠체어에 앉아 까무룩 잠이 드는 일이 잦았다. 항암치료 때문에 물까지 게워내면서 원래 통통한 체형이었던 나는 순식간에 체중이 35kg나 감소했다. 눈을 뜨는 것조차



차고통스럽게 느껴졌던 투병 생활을 청산하고 내 삶을 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백혈병 완치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떨어진 뇌종양 선고는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나의 소원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내 머릿속 뇌종양은 백혈병 재발과 백혈병 뇌전이, 뼈 전이의 결과물이었다. 서울 대학병원에 입원하기 3일 전, 짧지만 어찌면 마지막일지 모를 귀중한 시간을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것에 쓰자고 결심했다. 라쿤과 물개는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경관이 아름답다고 유명한 식당을 예약해주었다.

우리는 광안대교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식탁 가득 주문했다. 밤 그림자가 어스름히 하늘 위에 드리우자 통유리 창 너머 저녁 영업을 시작한 광안리 바닷가 가게들의 빛이 광안대교 주변을 총총 장식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우리 삼총사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까르르 배를 잡고 웃었다. 사소한 대화로도 밤은 무르익었고 우리는 '왜가리의 영어 이름이 뭘까?'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다가 얼굴도 식히고 바람도 쐬 겸 광안대교를 보러 나왔다.

헤론이 왜가리아? 와하하 하!! 물개, 라쿤, 나 우리 셋은 팔짱을 끼고 자지러지게 웃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우리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좌-, 밀려오는 파도 소리만 서로의 주변을 맴돌았고 친구들이 내 손을 더 강하게 잡는 것이 느껴졌다.

"치료 잘 받고 와... 서울이 좋다고 거기서 눌러 살면 안 된다?"

팔에 맞닿은 친구들의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 같았다. 방금까지 부산스러울 정도로 해맑게 굴었던 친구들의 눈에 아롱아롱 맺힌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너 나오면 우리 여기서 또 놀자."

"광안대교 보이는 파티룸 잡아서 파티하는 건 어때? 완치 파티!"

'약속할게. 치료 잘 받고 건강해져서 돌아올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우리 셋은 결국 서로를 부둥켜안고 엉엉 울어버렸다. 다시 이 경치 앞에서 친구들과 웃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 셋이 다시 손을 맞잡고 광안리 앞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꼭꼭 간직한 소원을 남몰래 바람결에 담아 날려 보냈다.

우리 그리고 광안대교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치료는 혹독했지만, 친구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버텼다. 항암치료 82회, 척수 항암 10회, 방사선 치료 15회, 조혈모세포 이식. 험난한 치료과정을 거쳐 백혈병 재발 후 암 투병 8개월째, 모든 치료를 끝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부산역에서 집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빼꼼 보이는 광안대교가 새삼스레 반가웠다. 곧 다가오는 2022년 4월 21일은 나와 라쿤의 합동 생일파티가 있는 날이다. 우리는 2년 전 나눴던 약속대로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파티룸을 예약했다. 계속되는 암 전이로 나조차 나에게 희망을 품지 못할 때마다 광안대교 앞에서 마주 잡았던 친구들의 손을 떠올렸다. 온몸을 난도질하는 통증에 굴복하고 싶은 순간 나를 다시 일으켜준 소망이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만나자마자 별 쓸모없는 이야기를 왁자지껄 떠들고 별것 아닌 일에도 까르르, 웃음꽃을 피웠다. 30년, 70년이 흐른 후, 우리 삼총사의 백세 파티도 광안대교가 보이는 곳에서 하자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이 부디 꼭 지켜지기를. 저녁놀 모자를 멋들어지게 쓴 광안대교를 향해 소원을 빌었다.



부산시설공단 공개채용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지난 공채를 통해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공단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신입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Q1.
현재 근무하는 부서와
담당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Q2.
업무강도와 워라벨은
어떤 편인가요?

Q3.
공단 근무 중 뿌듯함,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Q4.
공단 입사를 위해
준비해온 과정이
궁금해요.

Q5.
면접전형 후기를
들려주세요.

Q6.
어떤 점이 공단 입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행정 8급 교량운영팀 김예린 주임 2021년 7월 입사	기계 8급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 전영규 주임 2021년 7월 입사	전기 8급 터널관리팀 이한솔 주임 2021년 7월 입사	토목 8급 기술혁신팀 김영혁 주임 2022년 1월 입사
--	--	--	--





부산시설공단 공개채용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행정직
김예린
주임**



부산시설공단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교량운영팀 김예린 주임(2021년 7월 입사)

현재 근무하는 부서와 담당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교량관리처 교량운영팀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인 주임 김예린입니다. 저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의 예산, 홍보, 고객센터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해진 예산 내에서 어떻게 지출할지 각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조율하기도 하고, 광안대교 SNS에서 볼 수 있는 시민참여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광안대교 브로슈어와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일, 관련 통계자료 취합 등 행정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강도와 워라밸은 어떤 편인가요?

업무강도는 일이 얼마나 친숙해지는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쉽게 느껴지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일을 기획하거나 추진할 때는 조금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업무들을 잘 끝내면 더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기에, 밸런스 있게 팀 구성원마다 비중 있는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만족합니다.

워라밸의 경우, 보통의 회사와 같이 바쁜 시기가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18시 퇴근, 일명 칼퇴가 가능하고 행사나 예산 편성 주간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무실에 나와 일하기도 합니다. 행사 자원과 같은 주말 근무를 하면 그만큼 대체 휴무를 주중에 사용할 수 있으니, 워라밸은 충분히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교량운영팀 김예린 주임(2021년 7월 입사)

공단 근무 중 뿌듯함,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응원톡' 이벤트를 추진했을 때였습니다. 시민분들의 엑스포 응원 문구를 받아서 광안대교에 표출하는 이벤트였는데, 엑스포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질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역, 시민공원, 광안리 일대에서 현장 이벤트를 직접 진행하였는데,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이벤트 일정을 물어봐 주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엑스포 응원에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열의를 모으는 데 일부라도 기여했다는 부분에서 팬스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공단 입사에 위해 준비해온 과정이 궁금해요.

혼자서 공부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스터디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 2회 NCS 스터디, 주 1회 면접 스터디에 꾸준히 참여해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공부하는데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행정직 전공과목의 전공자가 아니라서 전공보다는 NCS에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는데, 정답을 찾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기를 다시 보고 문제의 오류는 없는지 여러 번 찾아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공의 경우, 경영학 요약집을 중심으로 공부해서 기출 문제 위주로 다뤄봤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교량운영팀 김예린 주임(2021년 7월 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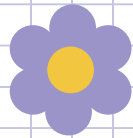
면접전형 후기를 들려주세요.

1차는 토론, 2차는 심층 면접이었습니다. 토론 면접에서 주제에 대해 면접자들을 무작위로 찬반을 나눈 후, 관련 자료를 읽고 면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언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의견을 신중하지만, 일관성있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심층 면접에서는 혼자 면접장에 들어가서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공단의 업무 현황에 대한 질문을 받아 조직도를 토대로 설명하였고, 전공과 관련된 질문의 경우 평소에도 관심이 많던 마케팅 분야라 수월하게 대답했습니다. 업무 상황 관련 질문이 많았기에, 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많이 알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공단 입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저만의 이미지가 공단 입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공단의 경우 사업장마다 특화된 사업이 있고, 여러고객층을 응대해야 하다보니 발빠르게 그 현장에 맞춰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인턴,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 등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의 문화와 성향을 파악하고 하나의 성과, 목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한 것이 그런 적응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공개채용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기계직

전영규

주임 ”



“ 부산시설공단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 전영규 주임(2021년 7월 입사)

현재 근무하는 부서와 담당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시설관리처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 기계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임 전영규입니다. 우리 공단 내 대부분의 기술직 직원들은 근무하는 사업소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한마음스포츠센터의 기계설비 운영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기계설비인 공기조화기, 냉동기, 열교환기, 승강기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수영장 기계설비 등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업무강도와 워라밸은 어떤 편인가요?

제가 있는 자리는 업무강도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공기업은 업무강도가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우리 공단은 시민 접점부서가 많고, 부서간 순환근무가 활발하기 때문에 반복된 업무로 권태로울 일은 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초과근무가 있을 만큼 업무량이 과중하지도 않아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회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

“ 부산시설공단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 전영규 주임(2021년 7월 입사)

공단 근무 중 뿌듯함,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우리 사업소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을 보며 많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한마음 스포츠센터는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설립되어 현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스포츠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중 자연스럽게 많은 장애인 분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자칫 사회에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활발하게 운동하며 센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공단이 시민복지에 큰 힘이 되는 공단이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단 입사를 위해 준비해온 과정이 궁금해요.

기계직 지원자라면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은 일반적인 공기업 필기전형과는 다르게 삼역학보다 암기과목의 출제비중이 높았던 편입니다. (금번 시험에서도 동일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본서와 공기업 기술 반복을 끝낸 뒤에는 법위를 넓히거나 깊이 있는 역학 개념을 공부하기보다, 암기과목의 국지적인 부분을 다루는 공무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 부산시설공단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 전영규 주임(2021년 7월 입사)

면접전형 후기를 들려주세요.

1차 면접에서는 토론 면접, 2차 면접에서는 심층 면접을 봤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사 당시 기준으로 타 지방공기업에 비해 면접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기에, 필기 전형 합격발표 후에는 면접을 조금 더 합치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토론 면접은 완전한 자유토론은 아니어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논리를 구조화하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가를 보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심층 면접에서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전공지식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시설공단이다 보니 전공에서 일반기계보다는 냉동공조와 건축기계설비 위주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이 공단 입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전형에서는 암기과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전형에서는 과거 사기업 근무 당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셨는데 그때 저 나름의 강점을 어필한 것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필기전형에 합격하신 분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성실도와 전공지식은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자신만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산시설공단 공개채용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전기직 이한솔 주임

부산시설공단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터널관리팀 이한솔 주임(2021년 7월 입사)

현재 근무하는 부서와 담당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도로관리처 터널관리팀 원동 사무실에서 전기직으로 근무 중인 주임 이한솔입니다. 저희 팀은 부산 시내 14개의 터널과 2개의 지하차도의 기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개 사무실과 7개의 관리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널관리의 주된 업무는 밝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명 설비 관리, 화재 등 비상 상황시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물 관리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강도와 워라밸은 어떤 편인가요?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 관리는 업무 자체로는 공단 내 타 시설을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현장 여건(위험도, 공기질 등)까지 고려한다면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잦은 외근이 불가피한 환경으로 현장업무와 행정업무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편입니다. 상황에 따라 초과근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워라밸 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만족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터널관리팀 이한솔 주임(2021년 7월 입사)

공단 근무 중 뿌듯함,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저희 부서는 일상적인 시설물 관리가 주된 업무이다 보니 시민과 직접적으로 마주할 일은 비교적 적지만, 중요 시설물 중 하나인 터널을 관리하며,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며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주변 선배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직원 제안 제도에서 본심사 채택 및 수상을 하면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단 입사를 위해 준비해온 과정이 궁금해요.

필기전형을 준비할 때는 봉투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모의고사라도 두 번 이상 풀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고, 문제를 푸는 속도와 정확성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면접전형 또한 실전 같은 연습을 위해 스터디원들과 모의 면접을 했던 것이 긴장되는 상황이나 추가 질문에 대응해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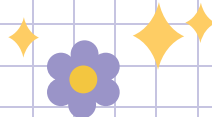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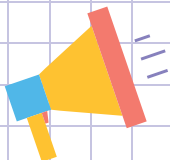
터널관리팀 이한솔 주임(2021년 7월 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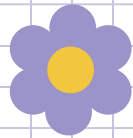
면접전형 후기를 들려주세요.

1차 토론 면접에서 제가 속한 조에서는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과 관련된 이슈(지하차도 침수)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2차 심층 면접 때에도 지원자의 공단에 대한 관심도를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지원 당시 부산광역시 통합채용이 처음으로 실시됐었는데, 지원자가 공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 또는 관심도와 생각을 면접관들이 중심으로 본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공단 입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대부분 지원자들의 경험이나 경력, 자격증은 비슷하지만 본인만의 색깔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나의 장점 3가지를 골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면접관에게 저의 장점을 잘 어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공단 입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부산시설공단 공개채용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토목직 김영혁 주임 ”



“ 부산시설공단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기술혁신팀 김영혁 주임(2022년 1월 입사)

현재 근무하는 부서와 담당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현재 시민안전실 기술혁신팀에서 토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임 김영혁입니다. 저희 기술혁신팀의 토목직 업무로는 교량, 옹벽 등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토목 분야 기술용역 및 대형사업 기술심사 등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물을 책임지고 점검하는 기술혁신팀의 업무는 부산 시민들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강도와 워라밸은 어떤 편인가요?

저희 공단은 워라밸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서와 시기마다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제가 속한 기술혁신팀의 경우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하기위한 외근이 잦아 내업무 밀렸을 경우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워라밸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



“ 부산시설공단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기술혁신팀 김영혁 주임(2022년 1월 입사)

공단 근무 중 뿌듯함,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저희 기술혁신팀에서 점검하는 시설물에는 부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산의 상징 광안대교, 영도대교 등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근무를 하며 이와 같은 시설물들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 시민들이 공단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공단 입사를 위해 준비해온 과정이 궁금해요.

필기전형을 준비하면서 전공 시험의 경우 기사책, 공무원 수험서를 활용하여 공부하였으며, NCS 시험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면접전형은 면접 스테디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스테디원들과 공단 홈페이지, 공단 관련 기사를 조사하여 공유하고 서로의 자기소개서와 전공 관련 서적을 바탕으로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 부산시설공단 신입직원 4명이 답해드립니다

기술혁신팀 김영혁 주임(2022년 1월 입사)

면접전형 후기를 들려주세요.

1차 면접은 토론 면접으로 면접자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였으며, 2차 면접이었던 심층 면접은 전공 및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치러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으로 2차 심층 면접에서 받았던 시설물 점검 방법, 중점 사항에 대한 질문이 기억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교량 시설을 예시로 들어 날씨와 온도를 고려해 신축 이후, 교량받침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떤 점이 공단 입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저의 경우 공공기관 인턴 경험과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를 할 당시 저는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해둔 상태였고, 공공기관 인턴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며 얻었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필기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으며, 인턴으로 근무하며 얻었던 다양한 경험이 면접 과정에서 도움이 되어 우리 공단에 최종 합격을 하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기후변화에 지친 북극곰,
2030엑스포 유치 응원하는 부기

문화예술로 숨쉬는 부산역광장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열반곰'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부산시 소통캐릭터 '부기'가 부산역광장에 나타
났다. 시민들을 위한 도심 문화공간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부산역광장으로 다함께 출발!
글 | 김채영 주임(플랫폼운영팀)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그린피스 '열받곰' 열받아+북극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북극에서 살 곳을 잃은 북극곰을 상징하는 대형 풍선인형 '열받곰'이 지난 여름, 부산역 광장에 나타났다.

그린피스가 기후변화를 경고하기 위해 제작한 높이 6m의 대형 풍선 인형 열받곰! 붉은 얼굴에 땀을 흘리며 손에는 풍력발전기를 들고 열을 식히는 열받곰의 모습은 누구도 피할 곳 없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재생에너지로 열 받은 지구를 식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권 홍보하는 부산시 소동캐릭터 '부기' 부산갈매기

2022년 추석 명절 연휴 첫날, 이번에는 높이 6m의 부산시 소동캐릭터 부기가 부산역 광장을 찾았다. '부산에 유치해'라는 문구가 그려진 하트모양 인형을 양손 가득안고 있는 부기는 뽕뽕뽕뽕한 눈과 바닷바람에 만들어진 파도형 헤어스타일, 동백꽃 문동화 등 부산을 담아낸 귀여운 외형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해당 부기 조형물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부산항 축제 당시 제작한 조형물로, 공단의 제안으로 부산역 광장 순회전시로 이어졌다.



“언제나 모두에게 힘이되는 문화광장”

부산시설공단은 '언제나 모두에게 힘이되는 문화광장'을 슬로건으로 부산역광장을 1년 365일 볼거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 부산을 대표하는 캐릭터 부기가 부산역 광장을 찾아온것도 바로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직원들의 노력이 뒤에 있었다. 직원들은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들고 발로 뛰며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유치하고 있다고. 그

만큼 광장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에 애착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 부산시립예술단과 런치콘서트를 할때도, 느린우체통으로 고객에게 마음을 전할때도, 자이언트 플라워가 화단에서 반짝일때도 어느 하나 직원의 손이 닿지 않은곳이 없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19년 9월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이 새롭게 들어선 이후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광장을 메우며 문화예술로 숨쉬는 광장을 일궈냈다.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계절이 가까워지는 지금, 과연 이번 겨울에는 어떤 즐거움으로 우리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부산역광장 시민불편 해결 위해 우리가 나선다!

부산시설공단 · 부산교통공사 · 초량지구대
동 구 청 · 동구보건소 · 노숙인센터

부산역광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6개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난 10월 여러 실무진들이 모여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 나갔다.

다양한 의견이 넘쳐났던 회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글 | 황유미 차장(플랫폼운영팀)





‘부산역광장 시민불편 해결 협의체’ 개최

노숙인, 주취자, 음주소란 등 부산역 광장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부산시설공단과 유관 기관이 힘을 모았다.

10월 18일(화) 오전 10시30분에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04호 회의실에서 ‘부산역광장 시민불편 해결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부산역광장 시민불편 해결 협의체’는 부산시설공단을 비롯해 부산교통공사, 초량지구대, 동구청, 동구보건소, 소망종합지원센터 등 6개 기관, 11명 실무진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그동안 순찰 계도, 환경미화, 시설물 정비 등으로 광장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유관 기관들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과 합동계도 활동 등 다양한 의견 나와

부산역광장 내 도시철도 부산역 6번 출입구 인근 구역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역광장의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합동계도 활동 실시, 노숙인 등 밀집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이동식 플랜터 화단 조성, 경찰차가 민원구역에 신속진입 가능한 공간 마련, 반복민원 해소

를 위한 흡연실 안내표지판 설치, 부산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6번 출입구 벤치형 구조물 접근 방지를 위한 펜스(난간) 설치, 불법 노점상 근절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주요 안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에 대한 처리결과서를 작성하며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해나갈 방침이다.



협의체 공동대책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부산역광장 만들기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기관 간 협조 사항과 개선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공동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부산역광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1차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모여 노숙, 음주소란, 불법 노점상 등 각종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변신중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중장기 계획 마련을 통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휴게공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터미널 버스킹, 부기 조형물 포토존, 자이언트 플라워 등 문화예술 콘텐츠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터미널의 변신을 기대해보자.
글 | 양하현 과장(터미널관리팀)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새롭게 변신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터미널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은 노후화된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의 시설 개선과 휴게공간 정비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합실 내부 전경

이용객 편의와 공공시설 가치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합실내 노후된 에스컬레이터 1~3호기와 엘리베이터 2호기를 교체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위해 친환경 바닥재와 이동식 실내정원을 조성했다. 대합실 바닥 개선, 휴게용 의자와 TV 전면 교체,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상황실 구축 등 이용객 편의와 공공시설 가치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행사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더했다. 그동안 회색빛으로 가득 차, 단순 교통시설 역할로만 그쳐왔던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정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똑똑문화드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터미널 버스킹'을 이어나가고 있다.

부산종합터미널 문화행사 '터미널 버스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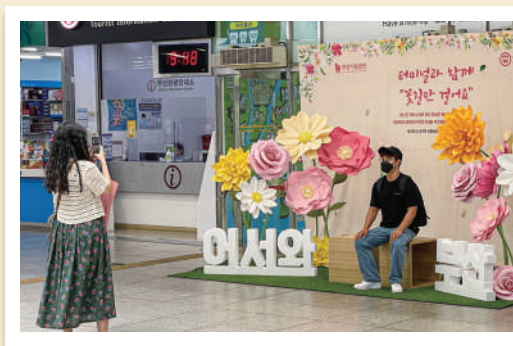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대형포토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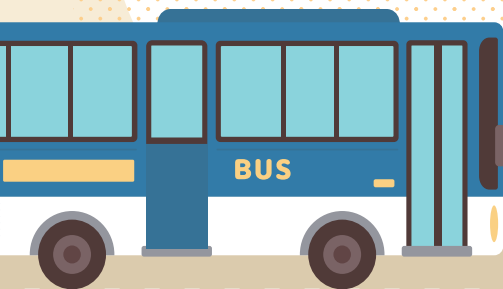
대합실 입구에는 부산시의 소통캐릭터인 '부기' 조형물 포토존을 설치하여 터미널을 찾는 이용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특히, 지난 봄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인기를 끈 바 있는 '자이언트 플라워'를 대합실 1, 2층 2개소에 전시하여 터미널 내·외부에 생동감을 더한바 있다.

◀ 부산시 소통캐릭터 '부기' 포토존

“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부산의 대표 관문으로, 이용객들에게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공하여 계속 머물고 싶은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이언트플라워 포토존 ▶



신기술 적용 국가 R&D 사업에 박차를 가하다

올해 부산시설공단의 연구개발 진행사업은 그 수가 7건으로
나열하기도 벅찰만큼 많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완료한
사업까지 합치면 11건 총 481억7천2백만원을 유치하였다.
부산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공단의 연구개발사업을 소개한다.



부산 공공기관 최초 'R&D 현장실증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시설공단은 R&D사업 박차로 노후시설 개선과 도시기반 시설의 성능향상, 첨단기술 선제도입 등 장점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2022년 부산R&D 주간 '우수 연구개발 성과'에서 '부산 영도대교 초박층 포장재 자체개발 사업'이 해양/클린에너지 분야에 선정되어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시민안전실 노영경 차장이 과학기술유공자로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고, 현장에서 초박층 포장공법의 우수성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개발 진행사업 7개분야 ▶ 총 426억8천2백만원

추진기간 예산



울산터널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22. 04.~'25. 12.
26.9억원



동서고가로 5G 기반 양방향 통합관제시스템

'21. 04.~'22. 12.
7.2억원



광안대교 IoT 수중 전위차 측정장치

'20. 04.~'22. 12.
8.34억원



광안대교 교량 AI기반 차량 단속시스템

'22. 04.~'23. 03.
2.18억원



자갈치시장 5G 기반 디지털트윈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22. 05.~'22. 12.
20.2억원



공영주차장 인공지능 영상기반 지능형 주차관제시스템

'22. 05.~'22. 12.
15억원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조명 플랫폼 개발

'20. 05.~'24. 12.
347억원

연구개발 완료사업 4개분야 ▶ 총 54억9천만원

추진기간 예산



수중로봇(ROV)의 성능 개선을 통한 현장적용 보급

'17. 04.~'18. 03.
8.8억원



교량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로봇 실증 사업

'19. 06.~'19. 12.
7.3억원



인터랙티브 미디어 체험을 위한 콘텐츠 제작

'20. 05.~'20. 12.
0.8억원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21. 07.~'21. 12.
3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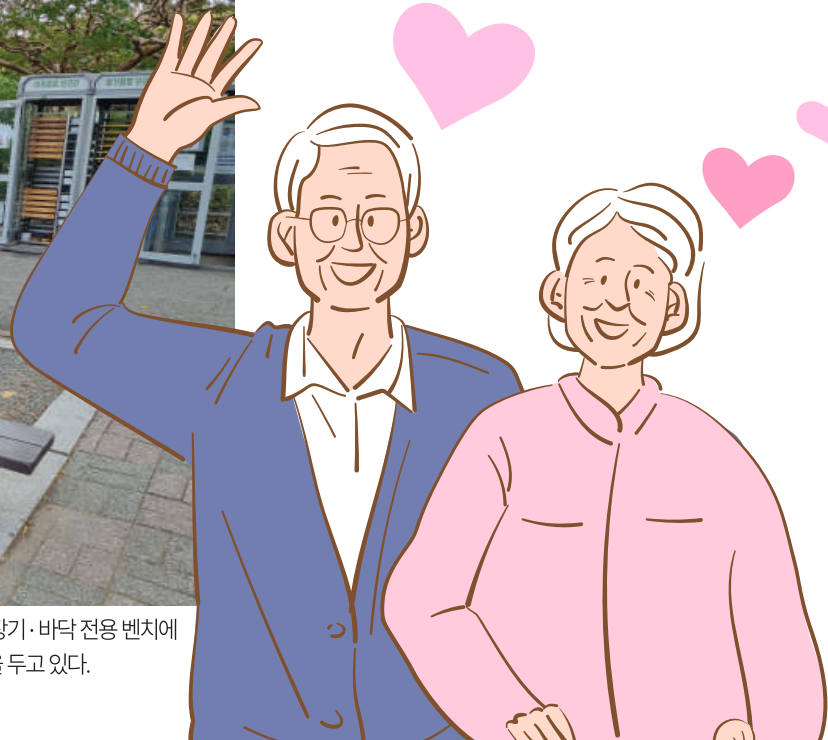
시민과 소통하는 마음에 어르신들 감동 중앙공원관리소장 찾아 고마운 마음 담아 감사패 전달



공원관리처 김병기 중앙공원사업소장이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화제다. 감사패를 전달한 이들은 공원을 자주 찾는 70~80대 노인 10여 명. 씬짓돈 15만 원을 모아 만든 감사패를 지난 9월 20일 김 소장에게 전달했다.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사비까지 모은 이유는 김 소장의 적극 행정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장기·바닥 전용 벤치에
앉아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



중앙공원의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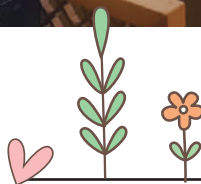
지난해 7월1일자로 중앙공원사업소장을 맡은 김 소장은 매일마다 공원 광장에 나가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시설을 정비해왔다. 특히 허리를 굽혀 장기·바둑을 두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용 벤치 7개를 설치했다. 김 소장과 직원들은 주문 제작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만 구입해 손수 전용 벤치를 제작했다. 제작할때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6차례나 반영해 벤치 높낮이를 조절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장기·바둑판 등을 들고 오르내리는 수고를 덜어 드리기 위해 KT와 협의해 폐기될 뻔한 공중전화부스를 장기·바둑판 보관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이밖에도 ▷공공의자 ▷운동기구 ▷정자 햇볕 가림막·바람 가림막 등도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로 설치하였고, 부산 중구청과 협의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저예산으로 확충하기도 했다.


잘한다!



장기·바둑 전용 벤치 전달후 기념 촬영



감사패를 받은 김병기 중앙공원사업소장이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주민 서수남(70대) 씨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노인이 공원을 자주 찾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이처럼 발 벗고 나서는 직원은 처음 본다. 많은 분에게 감사한 마음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당연한 일인데 어르신들께서 상까지 주셔서 정말 부끄럽네요. 코로나19로 공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한층 늘었는데, 이분들을 위해 공원이 가져야 하는 고유 기능에 돌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직접적인 돌봄은 어렵지만,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공원에서 일과를 보내다가 가실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직원들과 함께 실천해나가겠습니다.”

김 소장은 오늘도 여전히 공원 곳곳을 걷고 있다.

공원 유희부지의 화려한 변신 ... 다문화가족 향수^{향愁}정원 조성

금강공원과 대신공원 유희부지에 다문화가족 공동체가 고국의 향수^{향愁}를
달랠 수 있는 정원이 잇따라 조성돼 눈길을 끈다.



2022년 4월, 금강공원 내 유희공간인 잔디광장 일원 100㎡를 활용하여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3개국 6가구 다문화가족이 향수정원을 직접 조성하였다. 각 가족마다 주어진 공간에 매화, 모란, 맨드라미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초화들을 심고 국가상징 조형물과 국기 이름표도 함께 꽂아 다채로운 국가별 정원을 마련하였다.

참가가족 중 필리핀이 고향인 마일린씨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 뜻깊고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앞으로 고향이 그리울 때면 향수정원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다. 다른 나라 가족과도 알게 되어서 너무 좋고 주변에 많은 다문화가족들에게도 이 정원을 소개하고 싶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금강공원과 대신공원에 다문화 가족의 향수^{향愁}정원 조성은 다문화가족이 주어진 공간에 직접 나무를 심고 계속 가꾸어 나가는 정원문화프로그램으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조성돼 관심을 받고 있다.”

공단은 이어서, 2022년 6월18일(토), 대신공원 입구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공원 길맞이 마을쉼터’를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신공원 입구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무단 투기 금지 현수막’을 붙이고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마을쉼터를 조성키로 했고, 지난 5월 10일에는 서대신4동 동장 등 지역주민 50여 명이 함께 합동 대청소를 실시해 쓰레기 5톤을 수거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왔다. 특히, 마을쉼터 조성 과정에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서구청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협조와 도움이 빛났다.

부산 서구청에서는 엄광산 목재 파쇄장에서 톱밥 5톤을 무료로 지원해 시민들이 폭신하게 밟을 수 있는 쉼터 바닥을 만들었다. 공단 직원들은 2개월간 직접 땅을 고르고, 평탄화 작업을 하며 바닥포장 판석을 놓아 길을 꾸몄고, 나무 사이사이 초화를 심고 빈 공간마다 피크닉 테이블과 벤치를 놓아 이용객들이 잠시 쉬어갈 곳을 마련하는 등 땀 흘려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18일 쓰레기로 가득찼던 지역이 주민들이 그늘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길맞이 마을쉼터로 탈바꿈했다.



대신공원 향수정원 조성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총4개국 6가구가 참여해, 각 가족마다 주어진 공간에 중국단풍, 베트남 팔손이, 캄보디아 파인애플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초화들을 심고 국가상징 조형물과 예쁜 가족 이름표도 함께 꾸며 다채로운 국가별 정원을 조성했다. 주민들은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가 이웃들의 참여로 새롭게 멋진 정원으로 변신한 것에 높은 만족감을 표했으며, 앞으로 자발적인 ‘쉼터 지킴이’가 돼 지속적으로 함께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창립 30주년 부산시민공원 느티나무동산 조성 |

버려지는 수목 100여 그루, 그늘 필요한 시민공원에 옮겨와 느티나무동산 조성

서면~사상간 BRT 공사시 발생한 수목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실천과 자원순환 등 친환경녹색 정책기조에 크게 일조하며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 외곽지역 면적 약 7천㎡ 규모의 부지에 느티나무 동산 조성으로 그늘이 부족한 부산시민공원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편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는다.



☐ 시민공원 느티나무 동산 기념식

그늘이 부족해 늘 아쉬움이 남았던 부산시민공원에 느티나무 동산이 조성됐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공단이 시민불편 사항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가운데 맺은 결실이다.

기존에는 중앙잔디광장 외곽 약 7천㎡ 부지에 56주의 느티나무만이 있었다. 2022년 6월 중순, 공단은 이곳에 100주를 추가로 심어 총 156주의 느티나무 기념 동산을 조성했다.

특히, 이번에 식재한 느티나무는 서면~사상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구간에서 발생한 가로수 수목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등 친환경 녹색 정책에 크게 일조하게 되었다.

아울러, 공단이 올해 수립한 비전 2030 경영전략체계인 '편안한 부산 그린스마트 혁신 공기업'과 맞물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날 기념 식수 현장에는 공단 경영진과 실·처·원장, 팀장, 직원 등 총 40여 명이 함께 했다.

공단 관계자 다수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곳에 아름다운 느티나무 동산을 조성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가로수였던 느티나무를 살려 동산을 꾸민만큼, 무럭무럭 잘자라서 백년, 이백년 시민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입을 모았다.

지난 2014년 미군부대 반환지에 개장한 이래 부산시민공원은 그동안 그늘 부족에 대한 이용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녹음수 추가 식재, 그늘막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 시민공원 느티나무 동산 기념 식수



부산어린이대공원 옛 글연동산, '키우미숲'으로 탈바꿈

'아린이대공원 키우미숲'

한국전쟁을 치렀던 옛 글연동산에 60주년을 기념하여
부산어린이대공원 - 조목무연대역(옛글연동산)에 옛
아린 글나무를 위한 '아린이대공원 키우미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옛글연동산은 아린과 함께하는 글연동산(옛글연동산)에서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글연동산에 새로운 글연동산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조성합니다.

아린이대공원 키우미 숲에 60주년을 기념하여
옛글연동산(옛글연동산)에서
아린이대공원 키우미 숲을 조성합니다.

한국전쟁을 치렀던 옛 글연동산에 60주년을 기념하여

2022. 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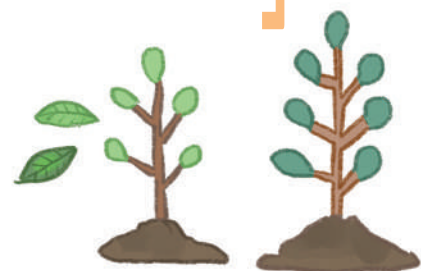
부산어린이대공원

부산광역시

아린이대공원

캠코 창립 60주년 기념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부금 1억4,000만원으로 조성

키우미숲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캠코 마스코트 '키우미'조형물과
작은 심터는 물론, 다양한 꽃나무, 화초류 등이 식재돼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

그동안 어린이 쉼터와 학습 공간이 부족했던 부산 어린이대공원에 맞춤형 자연 생태 학습 공간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그늘쉼터인 '키우미 숲'이 조성되었다.

2022년 7월13일 완공한 부산 어린이대공원 키우미 숲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한 걸음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은 1억 4천만 원으로 마련하였다.



어린이대공원 키우미 숲 완공식

기존의 오래된 금연동산(949㎡) 부지는 이제 어린이 식물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화화단과 어린이 키재기 시설물 등 어린이 맞춤형 숲 공간으로 거듭났다.

완공식 현장에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캠코 신홍식 부사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노희현 부산지역본부장·이홍렬 홍보대사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5월24일(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캠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사회공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키우미 어린이 숲을 진행해왔다.

ESG 경영 실천·사회공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및 기부금 전달식

일자 2022.5.24 (화)

장소 47층 대회의실



업무협약 체결





아름다운 부산, 부모님들과 한바퀴

비스코 핸드볼 선수단 부모님과 함께한 특별한 1박2일

비스코 여자핸드볼팀 선수들이 5월 어버이날을 앞둔 지난 4월27일(수)과 4월28일(목) 양일간 부모님 27분과 함께 공단이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과 명소를 함짝 견학하는 등 1박2일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글 | 이영석 주임(사회가치팀)



4월 27일과 28일, 여자핸드볼팀 선수와 부모님 초청하여 부산 투어



공단은 비스코 여자핸드볼팀 선수와 부모님을 초청하여 광안대교 앵커리지와 태종대유원지, 부산 시민공원,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등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오랜만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의 시간을 만끽했다.



첫날, 태종대유원지 인근식당에서 즐거운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대한핸드볼협회(회장 최태원)로부터 받은 상패도 선수단에 전달했다.



지난해 우수 성적 달성과 핸드볼 발전 기여에 따른 우수단체상과 우수선수상(강은혜), 지도상(강재원) 등 총 3종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상식이 취소되어 공단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여 상을 전달하며 선수단을 격려한 것이다.

특히, 부산 남구 문현동에 소재한 부산미래FC검진센터에서 선수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숙박과 건강 검진 등을 매칭 지원하여 몸도 챙기고 마음도 챙기는 소중한 시간을 두루 가졌다.

한편, 비스코 여자핸드볼팀은 최근 3년간 통합우승 2회, 준우승1회에 이어 올해 정규리그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시민참여플랫폼 대학생홍보단 '영비스코' 12기

공단 SNS콘텐츠 제작 및 홍보, 공익 실현 위한 광고 영상제작, 메타버스 연계 공단 운영 개선과제 발굴 등으로 십업이 달려온 5개월이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제해결 플랫폼 '제12기 영 비스코'가 2022년 6월28일 발대한지 만 5개월, 지난 12월 2일(금)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마침내 해단했다.

무심코 지나쳐왔던 부산의 대표적인 주요 시설들이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그들은 5개월동안 숨겨쁜 일정을 소화하며, 부산 알리기에 힘을 보탰다.

무더웠던 한여름과 가을, 16명의 영비스코는 개인 활동으로 영상물, 카드뉴스, 포스터, 가볼만한 곳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해 소통에 나섰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일 때는 비대면 화상회의 공간을 마련하여 서로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중간점검과 제언, 건의사항 등 의견을 나눴다.



※영벤저스팀



넌 응원해!



뽀에버영팀, 그리너리팀, 메타버스팀, 영벤저스팀 등 4개팀의 영상물 활동도 눈에 띈다.

자유주제 3팀과 메타버스 맵 1팀으로 나누어 톡톡튀는 아이디어의 영상물을 발로 뛰며 만들어냈고 SNS채널을 통해 세상밖으로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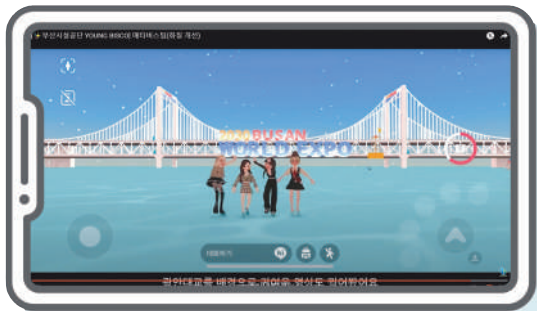
※12기 대학생홍보단 해단식



※그리너리팀



※뽀에버영팀



※메타버스팀

공단은 팀 영상물에 대해 2차례의 심사를 거쳐 2개팀을 선정, 포상했다. 참신한 기획과 영상의 완성도가 돋보인 그리너리팀이 총점 450점 최우수로 상금 20만원을 받았고, 뽀에버영팀이 탄탄한 구성과 충실한 시설소개로 총점420점 우수로 뽑혀 상금 10만원을 받았다.

공단이 주관하는 공원 자연학교와 공원 자연 힐링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젊은 시선으로 느낀 생생한 후기도 볼만하다.

공단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눈에 띈다.

심없이 달려온 5개월.

뿌듯하기도 했고, 색다르기도 했다. 자랑스럽기도 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마침내 활동을 끝맺음하는 날.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상이 주어지고, 기념촬영도 빠질 수 없다.

16명의 영비스코 날개짓은 이제 멈추지만, 이들의 마음 속에 비스코에 대한 소중한 기억만큼은 영원하기를 바래본다.



장례행정 전공 대학생을 위한 영락공원 장례지도사 현장실습 교육

장례문화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중한 협력을 지속해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겠다.

글 | 허수봉 과장(장사운영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6월 말,
장례행정 관련 전공 대학생을 위한 장례지도사 현장실습 교육이 부산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1주일간 펼쳐졌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실습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장례지도사의 지식과 실무 능력이
검비된 장례지도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꼈다.

2018년부터 해마다 50시간씩 장례상담, 화장예약, 의례지도 등
장례행정의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 무료 시행
염습 및 입관, 고인 위생처리 관련 위생용품, 위생보호구 사용방법 등



지난 2012년에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증이 처음 만들졌고, 공단은 부산 유일
의 장례지도사 관련 학교인 부산과학기
술대학교와 2018년부터 협력을 시작
하여 해마다 50시간씩 장례지도사로
서 필요한 장례식장 현장실습 교육과정
을 재능기부로 이어오고 있다.



부산영락공원은 향후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방안, 장례지도사
실습교육의 질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여 양질의 현장 교육을 제공하고
역량과 현장 적응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장례지도사 현장실습 교육 ○

- 고인 수습 ● 염습 및 입관 ● 고인 위생 처리 ● 위생보호구 사용 방법
- 분향실 설치 ● 장례상담 ● 화장예약 ● 장례 행정절차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총망라했다.



부산합동양조 생탁과 함께

6대 공원 유원지에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친환경 캠페인’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중앙공원(대신공원), 용두산공원, 태종대유원지, 송상현
광장, 금강공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며 생탁 협찬으로 생분해형
쓰레기봉투 2종을 제작해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자”라는 친환경 캠페인을 대
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부산합동양조 생탁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생분해형 친환경 쓰레기봉투 2종류와 전용 배부대 10개를 제작해 공단에 전달했다. ESG경영 실천을 위해 기꺼이 4천만원을 투자한 것이다.



지난 6월3일, 공단이 부산합동양조 생탁과 손을 잡았다. 6대 공원 유원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의 일환으로 생분해형 친환경 비닐봉투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생분해형 친환경 쓰레기봉투는 공단 본사와 생탁 장림제조장 현장을 비롯해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중앙공원(대신공원), 용두산공원, 태종대유원지, 송상현광장, 금강공원 주요 지점에 나누어 비치되어 전용배부대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이 친환경 캠페인을 구상하게 된 것은 코로나19가 차츰 약화되고 반려동물의 공원유원지 입장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배변수거용 봉투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기존 쓰레기 봉투와 작은 크기의 반려동물 배변 전용 봉투도 함께 제작한 것이다.

아울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염원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봉투 시안에 “함께 땀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격문과 심볼을 함께 담아 공감대 확산에 동참했다. 행사를 직접 기획한 소통홍보팀 관계자는 “50년이 넘는 지역 전통양조회사인 부산합동양조 생탁이 선택 좋은 취지의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소하지만 시민 누구나 탄소중립 실천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공동기획한 부산합동양조 생탁 장림제조장 강병규 대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과 지구와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여러분의 마음이 모여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월22일(수)에는 부산시민공원 전역에 쓰레기통이 일시 철거되는 “부산시민공원 쓰레기통 없는 날”행사가 온종일 열려, 공단이 제작한 친환경 쓰레기봉투를 이용객에게 제공하며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펼쳤다.

아울러, 부산합동양조 생탁은 지난 6월24일(금)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브랜드페스타 현장에서 공단과 함께 진행중인 6대 공원유원지 친환경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였다.



부산시설공단 한혈왕 4총사 누적헌혈 450회 달성 기록

헌혈은 작은 결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눔이라고 헌혈왕 4총사는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며 선행에 앞장 서고 있는 4명을 만나보자.



박중서 차장(누적헌혈 240회), 신동은 차장(누적헌혈 100회), 황석우 팀장(누적헌혈 69회), 송은호 과장(누적헌혈 41회)

공단이 해마다 시행해온 사랑의 헌혈 캠페인이 2022년 6월9일과 6월10일 양일간, 부산시민공원과 부산역광장에서 이어졌다. 올해 헌혈캠페인 현장에도 어김없이 공단 헌혈왕들이 대거 참여했다.

영락공원 장사운영팀 박중서 차장은 누적헌혈 240 회로 그간 헌혈유공장 은장, 금장, 명예대장, 총재 표창, 회장 표창 등 헤아리기가 힘들다.

도로환경팀 신동은 차장은 2019년 금장 포장증 수상에 이어, 이번에 누적헌혈 100회를 채워 헌혈 유공장 명예장 표창을 받았고, 본인과 주변 지인의 헌혈증을 보태 총 55장의 헌혈증을 현장 기부했다.



“희망풍차라는 기부문화로
정기적으로 기부동참”



“평생 헌혈과 기부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파”



“헌혈은 작은 결심으로 실천하는
소중한 나눔”



“헌혈 행사는 모두 동참,
다양한 선행로 함께”

터미널관리팀 황석우 팀장도 누적헌혈 69회로 현재까지 은장, 금장 등 유공장을 수상했고, 은장을 수상한 바 있는 청렴감사실 송은호 과장(현재 중앙공원사업소 근무)도 지난 6월 캠페인 참여로 누적헌혈 41회를 채웠다.

박중서 차장은 고교시절부터 헌혈에 참여해 지금까지 240회 헌혈을 해왔고, 그간 헌혈유공자 은장, 금장, 명예대장을 수상했다. 2011년에는 대한적십자 총재 표창도 받았다.

헌혈을 하며 알게 된 조혈모세포 기증에도 참여해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에게 기증, 대가 없는 나눔을 통한 귀중한 생명 살리기에도 동참했다. 박 차장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헌혈을 하러 갔다가 혼자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속상했다.

이후부터 친구들과 경쟁적으로 헌혈을 해왔고, 그때의 엉뚱하면서도 긍정적인 도전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된 것이 인생의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다. 헌혈은 작은 결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눔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신동은 차장은 “헌혈센터에서 희망풍차라는 기부 문화를 알게 되어 8년 전부터 가족이름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5만원을 기부하고,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란 단체도 알게 되어 13년전 처음에는 2천원부터 시작해 해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금액을 올려 지금은 5만원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또 “매달 월급통장에서 정기적으로 10만원이 빠지지만 불평 한마디 안하고 살림을 살아가는 아내에게 고마움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며 “앞으로도 평생 헌혈과 기부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석우 팀장과 송은호 과장도 웬만한 헌혈행사는 모두 참여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선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 선정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시설공단이 「지하도상가 주차장을 활용한 대도심 상습 교통 정체 해소」 성과를 인정 받아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292개 기관에서 참여해 제출한 540여건의 우수사례 중 1차 및 2차 예선을 통과한 17개의 우수사례가 치열한 경합을 펼친 끝에 부산시설공단이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심사과정 전반에 국민심사단 사전심사,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수상의 의미가 더욱 뜻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서면교차로 교통혼잡 개선 위해 중앙몰 주차장 입출차 가변운영에 돌입

지방공기업 부문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한 공단은 롯데쇼핑(주), 지하도상가 중앙몰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하도상가 주차장 입구를 출구로 변경 운영해 서면교차로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도 실현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높은 평가를 얻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적극행정을 추진 한다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마인드가 업무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3월 30일, 롯데쇼핑(주)·중앙몰상인회와 3자 협약을 체결한 공단은 중앙몰 주차장 입출차 가변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인 차단기와 교통 신호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2022년 5월 6일(금) 오후 6시부터 중앙몰 주차장 입·출차 가변 운영에 돌입하였다.



중앙몰 주차장내 입출입구



중앙몰 주차장내 교통차단기



기존의 중앙몰 주차장 입차램프를 혼잡시간대에 입출차램프로 가변 운영하여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나오는 일부 차량을 가변운영 램프로 유도하고, 출차 차량들을 서면교차로 방면이나 가야 방면이 아닌 부전로 방향으로 출차시키고 있다.

공단과 롯데쇼핑(주), 상인회는 입출차 가변운영을 통해 주말·공휴일 등 저역 혼잡시간대 서면교차로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는 평이다. 롯데쇼핑도 중앙몰 상점을 이용하는 이용고객에게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고 지하도상가 이용고객에게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등 상생에 앞장서고 있어 입점상인들의 매출 향상에도 숨통이 트이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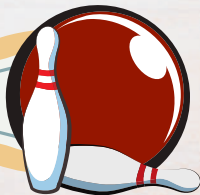
만 3년만에 펼쳐진 노사화합의 장 부산시설공단 한마음 볼링대회!

2019년 10월 공단 체육대회가 개최된지 3년만에 서면볼링센터에서 한마음볼링대회가 열렸다. 부산시설공단 4개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여 노사화합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오프라인 체육대회의 축제를 즐겼다.

글 | 박경민 대리(총무복지팀)



노사화합의 한마음볼링대회



2019년 가을, 부경대학교 실내체육관에 펼쳐졌던 '부산시설공단 인의 날' 이후 만 3년만에 진행된 오프라인 체육대회 자리였다. 지난 10월, 노사화합과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한마음 볼링대회가 서면볼링센터에서 열렸다.



결승전을 앞둔 우리가 한마음



결승전 경기중 환호하는 금강금강



김훈식 기반시설본부장의 인사말



결승전을 시작하면서 양팀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동우 노동조합위원장과 김훈식 기반시설 본부장이 시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한마음 동성녀 주임

초박빙 '아자아자화이팅'

10월18일(화)부터 10월 20일(목)까지 3일간 안 전혁신본부 4팀, 기반시설본부 12팀, 행복복지본부 13팀 등 총29개팀이 출전하여, 예선1~3차전을 펼쳤고, 최종 4개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금강공원사업소(금강금강) 272점, 한마음스포츠센터사업소(우리가한마음) 269점, 도로시설팀(캡틴도로) 269점, 시민공원시설팀(스트라이크 300) 268점. 결선에 오른 4개팀 모두의 합산점수는 초박빙.

10월29일(토) 오전10시부터 진행된 결선무대는 예상했듯이 실력차이가 거의 나지않아 혼전을 거듭했다.

금강금강팀과 우리가한마음팀이 최종결승전에 진출하였고 열띤 경기를 뒤로하고 마침내 환호성이 터졌다.



우승을 차지한 금강금강팀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기뻐하는 준우승의 우리가 한마음팀



우리가 한마음 이덕훈 주임



3위 캡틴도로



4위 스트라이크300

준결승경기는 금강금강이 277점, 스트라이크 300이 270점으로 금강금강이 결승에 진출하였고, 우리가 한마음이 351점, 캡틴도로가 292점으로 캡틴도로가 결승에 진출했다. 곧바로 진행된 결승전 최종 스코어는 금강금강 125점, 우리가 한마음 108점. 금강금강의 우승이다. 3-4위전은 캡틴도로가 122점으로 3위, 스트라이크 300이 112점으로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우승팀과 상금

우 승	준우승	3위	4위
금강공원사업소 (금강금강)	한마음스포츠센터 (우리가 한마음)	도시시설팀 (캡틴도로)	시민공원시설팀 (스트라이크 300)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금강금강 이정순 주임

재미로 보는 2023년 띠별 사주



흑토끼癸卯년의 해를 맞아 띠별 운세를 점쳐보자~

2023년은 간지력 표기법으로 계묘(癸卯)년이며 토끼띠의 해가 된다.

토끼는 오행색(청적황백흑)으로 12년마다 바뀌면서 표기되는데 올해는 수(水)를 상징하는 검정에 해당하므로 흑토끼의 해이다. 계묘년은 어떤 해가 될지 나의 운세는 어떻게 살펴보자!



쥐

84년생: 문서, 부동산, 이사, 이동, 자격증, 학업 등에 매진할 상황이 생기며 조직, 보직의 변동운이 발생한다. 스승과 멘토, 나보다 연장자나 윗사람의 조언에 의지하면 길한 일이 생긴다.

72년생: 투자, 재테크에 주의, 재물의 손실수가 있게 된다. 협업과 동업 제약이 들어오며 새로운 일이 발생한다. 건강관리에 주의하고 운동, 취미활동을 하면 귀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

60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기존의 삶을 변화하고자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인내하면 행운이 따른다. 관재, 법적 소송에 주의하라.



소

85년생: 도장이나 서명을 하게 될 일이 생기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여 일을 진행하면 무탈하다. 자격증, 어학공부에 매진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지체되고 경쟁자 출현으로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실히 노력하면 오히려 화(禍)가 복(福)으로 변하게 된다.

61년생: 직장, 조직의 이직 또는 변동운이 발생하며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신사업 등의 일이 생기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진다. 안정적인 투자는 길하지만 모험은 자제하라.



호랑이

86년생: 여행, 취미, 운동 등을 새롭게 시작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며 이성과 연애하기 좋은 운이다. 자신감이 강해지며 일에 대한 성과도 좋아진다. 단 구설수에 주의하라.

74년생: 부동산과 관련한 매매, 투자 등의 일이 발생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동업, 협업, 우정 등은 좋지만 배우자 또는 연애운은 주말부부, 이별수에 주의한다.

62년생: 인맥이 넓어지며 사람이 와서 돕는 형국이므로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되어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기회가 온다. 주변의 대인관계에 공을 들이면 행운이 따른다.



토끼

87년생: 스트레스로 힘들어지므로 스스로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인내하라. 오히려 올해는 공부에 정진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75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면 주변의 도움으로 성사된다. 그러나 자만하게 되면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기므로 늘 자중해야 한다.

63년생: 길흉이 절반으로 섞여 있어서 답답한 일도 생기지만 힘이 되는 귀인의 도움도 있으니 직분에 충실하면 길해진다.



용

88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운이다. 승진, 명예, 재물을 모두 얻는 길한 운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76년생: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안정적인 한 해이다. 소속된 조직, 환경,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64년생: 고달프고 힘들지만 고생 끝에 좋은 일이 생긴다.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지만 예상하지 못한 우환수도 따르니 매사 주의하라.



뱀

89년생: 이성으로 인한 번민과 갈등에 주의하고 건강관리에 주의해라. 돈을 잃으면 사람이 남고 사람을 잃으면 돈이 남는 형국 이므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 있는 운이다.
 77년생: 조직, 직장상사의 변동수가 있으며 일복이 많으며 매우 바쁘고 힘들지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
 65년생: 부동산, 건강, 부모님 문제 등이 올해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답답한 일도 있지만 멘토와 연장자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



말

90년생: 연인과 이별수가 있으며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인간관계의 배신수가 발생한다. 항상 베풀고 손해보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이 풀리게 되어 길하게 바뀐다.
 78년생: 재물을 얻게 되지만 다시 나가는 형국이므로 돈 관리에 주의해라. 이사, 이동수가 있으며 좋은 일이 먼저 오고 나쁜 일이 뒤에 오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66년생: 새로운 조직, 단체에 가입할 일이 발생하니 환경변화에 대비하라. 가족 및 인간관계의 변화, 거주지의 이사, 이동수도 발생하니 대세에 순응하라.



양

91년생: 미혼이면 좋은 이성을 만날 운이다. 운동, 취미, 재테크에 관심을 두고 기회를 노리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79년생: 일이 바쁘고 힘들지만 결과는 희망적이다.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게 되므로 자신을 가져도 좋은 운이다.
 67년생: 위로는 싸우고 아래로는 화합하는 형국이다. 공적인 일은 불리하므로 사석에서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일을 해결하라. 일부 양보하고 일부 내가 얻게 되니 욕심을 경계하라.



원숭이

92년생: 애정과 미움이 교차하고, 이별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취업, 승진에 불리함이 있고 경쟁이 치열한 전투상황이다. 불리할 때는 자존심을 낮추어야 한다.
 80년생: 인간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재물의 손해가 따른다. 직장, 조직의 변동이 있으며 가정이 편치 않아서 이사하고 싶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해라.
 68년생: 여성, 연하,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일이 해결된다.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체로 원만하게 처리되며 재물복이 늘어나는 한 해가 된다.



닭

93년생: 직장의 이직 또는 변동 운이 있으며 동업 및 사업의 운도 생긴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니 기회를 잘 포착하라.
 81년생: 가족의 변동수, 이사운이 들어온다. 일을 진행함에 큰 욕심을 내면 불리하니 매사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남에게 많이 베풀고 봉사하면 길해진다.
 69년생: 올해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재물운용에 특히 주의해라. 직장, 사업장, 가정에 큰 변화가 보이므로 이에 대비하라.



개

94년생: 거주지 이동운이 있으며 공부, 시험, 합격운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다.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며 어려움이 해결된다. 올해 열심히 일하면 연말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82년생: 협조자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이 생기며 새 인맥이 형성된다. 가정이 안정되며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안팎으로 편안한 형국이다.
 70년생: 올해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긴다. 사업 또는 부업, 재테크로 수입이 생기고 취미, 운동,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행운이 따른다.



돼지

95년생: 공부, 자격증, 부동산과 관련한 일이 발생하며 해외, 지방 등의 출입과 활발한 이동운이 있다. 올해는 유학, 여학연수, 학업, 시험에 유리하고 학원, 학교, 호수, 물가, 바다 등이 행운의 장소이다.
 83년생: 이직, 전직 등 직업 변동운이 있다. 기존 업무의 변동수가 발생하며 나를 돕는 귀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자신감과 추진력이 왕성해지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71년생: 매우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므로 재물복이 늘어나고 해외, 여행, 이동 운이 있다. 주의할 점은 건강과 비만이다.

2030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응원톡 이벤트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의 응원메시지를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에 표출함으로써 엑스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높이기 위해 기획하였다.

글 | 김예린 주임(교량운영팀)



2030부산월드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한 응원톡 이벤트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12일까지 펼쳐졌다.



3,035명 역대 최다 시민 참여, 80명 추천하여 광안대교 경관조명 통해 응원 표출

시민 3,035명의 응원 문구가 접수되었고 그중 추천을 통해 80명을 선정하여 4월25일(월)부터 4월28일(목)까지 나흘동안 광안대교 경관조명을 통해 응원 문구를 표출했다.

부산역광장, 부산시민공원, 광안리해변 등 3일간 홍보부스 운영, 많은 인파 몰려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일(금) 부산역광장과, 4월 2일(토) 부산시민공원, 4월 8일(금) 광안리해수욕장에 나가 홍보부스를 직접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부산엑스포 유치 열기 확산과 시민들의 관심 고취를 위해 '엑스포가 궁금해!'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엑스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응원톡 행사를 맡았던 교량운영팀 김예린 주임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에 표출되어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실제로 시민들의 열기를 현장에서 느끼니 엑스포가 멀지 않았다는 기분이 들어 설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응원 문구 워드 클라우드 (출처: 워드클라우드)

카카오톡 챗봇 부비가 궁금해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을 합친 말이다. 공단이 SNS 플랫폼을 활용한 24시간 비대면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시한지 2022년 11월15일로 만 1년이다.

현재까지 누적 호출수는 지난 10월에 1만건을 넘어서었다. 매 달 천 건 남짓 문의가 올라온다. 공단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다.



이용자들은 키워드 검색으로 공단 관련 행정민원 관련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민원전화 응대 없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주말·공휴일 상관이 없다. 공단 시설과 관련해 카카오톡 챗봇에 물어보면 즉시 답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다 많은 이용고객 확보를 위해 공단은 수 차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2022년 1월에는 챗봇 네이밍 시민공모를 통해 663명이 참여하여, “부산의 네비게이션”이란 뜻의 “부비”로 이름도 지었다. “부산의 비스코”란 뜻도 함께 할 수 있어 공단에 더욱 친근하다.



2022년 상반기에는 주요 사업별 다양한 민원 데이터를 추가로 반영하여 고도화 작업을 거쳤다.

챗봇 어떻게 하는걸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카카오톡에서 “부산시설공단”을 검색한 후 친구추가를 하면 입력창에 궁금사항을 쓰면 바로 자동응답이 나온다. 이어서 더 상세한 문의를 하면 또다시 자세한 응답이 이어지는 형식이다.



부산시 유료도로 연속통행할인제 4월15일부터 전면 시행



전국 최초 광안대로 포함 총 7개 유료도로 연속 통행료 200원씩 할인
공단은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완료

전국 최초인 부산시내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가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한달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4월 15일(금)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는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유료도로의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km당 4분 안에 통과하면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차종 구분 없이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된 시범운영에서 km당 3분이 기준이었으나 전면 시행 시에는 km당 4분내 통과로 시민혜택을 확대시켰다.

연속통행 차량은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내면,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과 횟수에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200원의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않거나, 경차 할인 등 이미 요금이 감면된 차량은 제외된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 8개 중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부산항·울속도대교,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7개이며, 이중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광안대교가 통행량이 가장 많다. 부산시 요금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한 달 동안 민자도로인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에서 시범운영을 통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유료도로 연계서버를 안정화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행료 경감을 위한 부산시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안대교를 관리 운영 중인 공단 교량관리처는 부산시 정책을 반영한 다양한 통행료 감면제도의 시행으로 시민 부담 경감과 광안대교 경관조명을 통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동백동 활성화 등 시민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4대 공원·유원지 산불지상진화 경연 펼쳐



지난4월13일(수) 오후1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일원에서 공원유원지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산불 지상진화 경연에는 공단 공기관리처 산하 중앙공원·어린이대공원·금강공원·태종대유원지사업소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산불진화대 4개팀(팀당 7명)과 심판진 등 총 35명이 참여하여, 산불 지상진화 실력을 겨루었다.

공단은 산불진화차, 중형펌프, 13mm와 8.5mm 호스, 간이수조,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기계화 장비 9종을 이용하여 발화지를 완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훈련내용을 평가에 반영했다.

이날 산불 지상진화 최종 경연을 펼친 결과, 어린이대공원사업소가 총점 97점(소요시간 5분 32초)으로 최우수, 중앙공원사업소가 90점(소요시간 6분4초)으로 우수, 태종대유원지사업소(소요시간 7분 6초)가 83점으로 장려를 받았고, 금강공원사업소는 소요시간 7분16초로 아쉽게 4위에 그쳤다.

공단은 경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출발지, 수조, 경유지, 종점 등 구간별로 심판관을 1명씩 배치하고 부산진소방서 전문가 2명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경연 후에는 심사위원인 부산진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산불진화 시 유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민관합동 공유 모빌리티 안전캠페인 전개



공단, 부산시, 금정구청, 금정경찰서, 부산대, 공유모빌리티 업체 등 캠페인 참여
안전한 공유모빌리티(전동킷보드, 초소형전기차)로 이용 시민 안전의식 제고

부산대학교 일원의 부산형 15분도시 실현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개인용 이동장치인 퍼스널모빌리티 전동킷보드와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9월 30일(금), 도시철도 부산대역과 장전역 일원에서 민관합동으로 공유모빌리티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단(주차관리처)을 비롯해, 부산시(공공교통정책과), 부산대학교, 금정경찰서(교통관리계), 공유모빌리티 업체 관계자 등 총 25명이 함께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홍보 기념품을 배부하고, 현수막 홍보를 비롯해 전동킷보드 이용시 안전한 킷보드 주차공간 거치와 안전도 착용법, 인도 주행금지, 전방 주시 등 안전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여 직접 킷보드에 부착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형 15분도시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으로 부산대역, 장전역, 인근대학에 공유모빌리티 주차시설 노면표시, 충전기,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9월 1일(목)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부산R&D주간 우수연구개발 성과 부산시장상 수상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주관하는 2022 부산R&D 주간「우수연구개발 성과」에서 '부산 영도대교 초박층 포장재 자체개발사업'이 해양/클린에너지 분야에 선정되었다. 올해로 8회차를 맞아 10월20일과 21일 양일간 웨스턴조선 부산 호텔에서 개최된 '부산 R&D주간'은 부산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과학기술 대중화를 도모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공단은 국내 최초로 적용한 영도대교 도개교 구간의 초박층 포장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지역기업인 (주)새론테크(대표이사 설태운)와 공동개발 협정을 맺고, 그동안 실내시험과 1년 6개월간의 현장 실증을 추진해왔다. 2021년 3월에는 공정별 슬러리 혼합비율 및 고성능 접착 코팅재 개발과 시공방법까지 특허를 출원하여 그동안 해외 제품에 의존해왔던 자재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자재수급 어려움 해소와 유지보수비 절감을 실현하였다.

'부산 영도대교 초박층 포장재 자체개발사업'의 연구원으로 참여한 공단 시민안전실 노영경 차장은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되어 「2022 부산R&D 주간 행사」에서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하였으며, 10월 20일(목) 행사 현장에서 초박층 포장공법의 우수성을 발표하였다.



2022. 2. 25.

부산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산림 일원
산불기계화진화대원 진화훈련

2022. 5. 10. ~ 6. 6.

부산유라시아플랫폼광장



자이언트플라워 정원에서 즐기는 봄



2022. 6. 22.

부산시민공원



쓰레기통 없는날 캠페인

2022. 8. 25.

공단 본사



부산영상위원회 카페051 커피차 지원

2022. 9. 6. ~ 11. 6.

부산 지하철상가



구매인증 SNS챌린지

2022. 10. 7.

사회복지처



두리발 특장차량 개조업체 품평회



2022. 10. 12.

_부산 서면 일대



쓰담 쓰줍 캠페인 동참



2022. 10. 28.

_부산시민공원



기부숲 벼수확 체험행사



2022. 11. 9.



본사 임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2022. 11. 14.



부산시설공단·호주 여자 국가대표 핸드볼팀 친선경기
친선경기 기념촬영



2022. 11. 14.

_부전물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착공식

2022. 11. 17.

_부산시민공원



배추·무 수확체험 나눔행사



2022. 11. 22.

_벡스코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2022. 12. 1.

_공단 본사



2022년 체험형 인턴 임용장 수여식



“
공단 블로그
공단 캐릭터
꼬미와 꾸미로
꼬미와 꾸미로
더욱 **친근**하게”



공단 블로그 메인화면에 공단 캐릭터인 꼬미와 꾸미가 등장했다.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위한 응원도 빠뜨리지않았다.
대학생홍보단 영비스코 12기들의 청렴캠페인 홍보활동과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가득하다.



♥공단 인스타그램의 다양한 이벤트

공단 인스타그램에는 다양한 공단 이벤트가 연중 가득하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수기공모전 공유이벤트, 챗봇의 이름을 부탁해 명칭 공모 이벤트와 ‘챗봇과 톡톡’ 챗봇 가입 이벤트, 시민행복 아이디어 발굴 이벤트,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와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 이벤트, 공단을 빛낸 뉴스 설문조사, 사랑비가 내려와 광안대교 사랑톡 이벤트와 2030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응원톡 이벤트, 부산시설공단 현혈홍보 인증샷 이벤트, 공단 제 페토월드(부산시민공원, 광안대교)에서 2030부산엑스포 인증샷 이벤트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콘텐츠들이 넘쳐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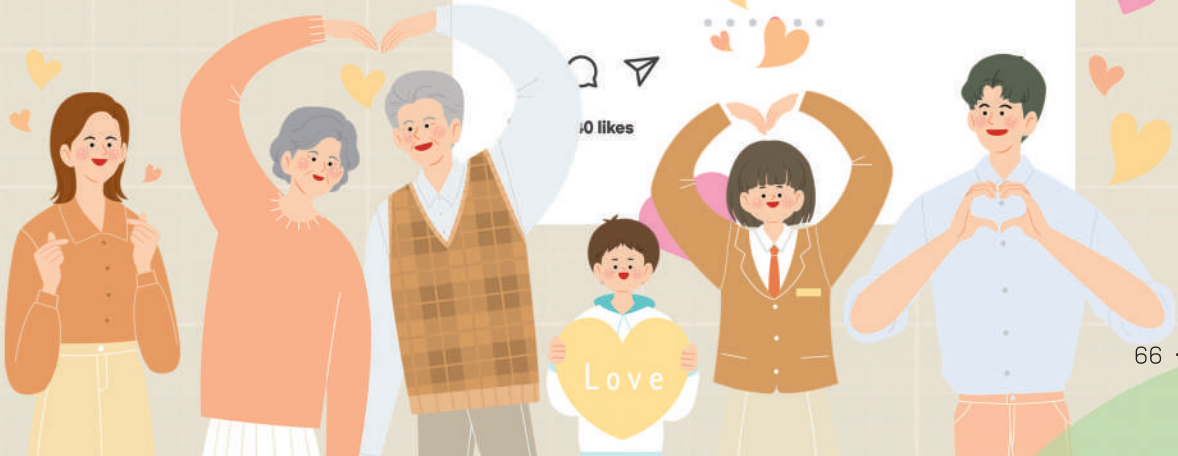


♡ 공단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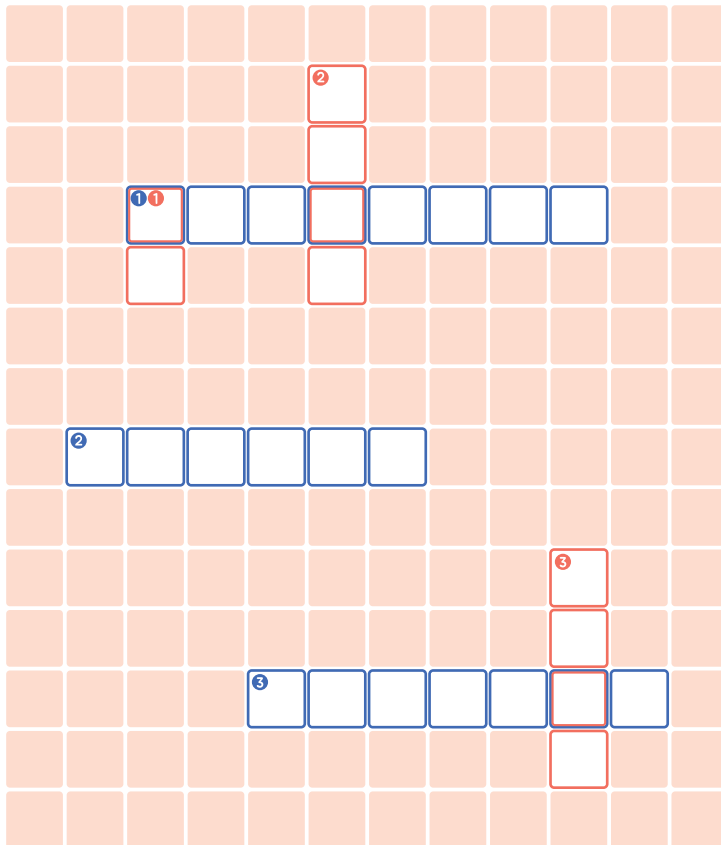
연중 다양한 공단 소식이 우선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곳 역시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동한 시민참여 이벤트 소통을 빼놓을 수 없다. 청렴사진 공모전 설문조사, 신규직원 채용 관련 인스타그램 구독자 이벤트, 광안대로 설문조사 참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초대형 부기 풍선 등장 등 즐거운 소식은 물론이고, 광안대교 교통통제 알림이나 태풍 등 재난 사고 등에 대한 조치사항 등도 실시간 공유된다.

지금까지 공단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챗봇 등 다양한 채널을 들어가보지 않았다면 시간을 내어 꼭한번 방문해 주시는 센스!





이번 사보 87호를 마무리하며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가로퀴즈

- ① 공단 창립30주년을 맞아 이번에 발간한 기념 백서의 부제 일부로 시민과 함께한 30년 뒤에 붙는 말은?
- ② 창립30주년을 맞아 서면~사상간 BRT 사업 구간에서 발생한 가로수 수목을 활용하여, 부산시민공원 외곽에 조성한 동산이다.
- ③ 지난 10월 노사화합과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서면볼링센터에서 열린 대회로, 만 3년 만에 진행된 오프라인 체육대회이다.

세로퀴즈

- ① SNS플랫폼을 활용한 공단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로, 부산의 네비게이션 또는 부산의 비스코란 2개의 뜻을 가진 이름이다.
- ② 부산어린이대공원에 조성한 맞춤형 자연 생태 학습 공간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공단과 협력하여 진행한 기부캠페인으로 마련한 숲이다.
- ③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잇는 국내 최대의 해상 복층 교량으로, 공단 창립 30주년을 빛낸 뉴스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23 Calendar



1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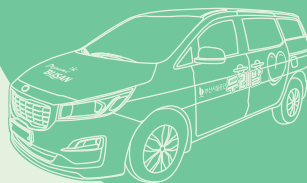
편안한 부산,
그린스마트 혁신 공기업

두리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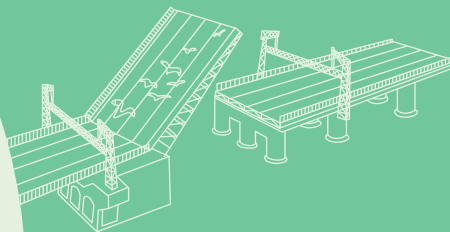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지방자치단체 부문

1위 달성



시민과 함께한 30년
새롭게 도약할 내일



since
1992



부산시설공단